

熙 朝 軼 書

任 昌 淳

(泰東古典研究所長)

1. 著 者

本書는 上下單卷인데 1866(高宗 3年) 「雲岡書屋」이 라는 題籤이 있는것을 보아 著者가 自費出版한 것으로 생각된다. 全史學活字를 사용하였다.

著者 李慶民(1814—1883)은 江陽 李氏 字는 元會, 號를 雲岡이라하는데 그는 본시 士族이 아니요, 吏曹의 書吏出身으로 문필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典故에 밝고 讀書를 많이 하였으며, 服務의 여가에 조금도 책을 손에서 놓는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士族高官들도 그를 한낱 家奴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學者로 대우하였다. 뒤에 官位는 僉知中樞府의 職함을 받았다. 그의 상세한 傳記는 조사할 길이 없고, 그의 著書인 熙朝軼事만이 後人에의 좋은 資料로 提供되고있다.

2. 本書의 內容

題目에서 보인바와 같이 本書는 太平盛代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특이한 行蹟을 엮은 것이다. 上卷은 韓舜繼, 劉希慶에서 金泳까지 39人, 下卷은 石希璞에서 文金生員까지 35人과 吳孝婦, 翠梅 등 10人의 女子까지 합하여 上下合 84人의 奇聞逸事를 모은 것이다. 卷首에 判書 南秉吉의 序에는 세상에는 비록 出世하지 못한 사람이운데라도, 文學으로, 操行으로, 技藝로, 훌륭했던 사람이 없지 않았으나 모두들 姓名을 전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그 그림자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이 책의 編者가 갖은 苦心을 기울이어 수집한데 대한치하를 늘어 놓았으나 作者의 경력이나 책을 만든 취지에 대하여는 서술되지 않았다. 또 卷末에는 尹定鉉의 跋이 있는데 여기에도 다만 세상에 들어나지 않은 사람의 行蹟을 모아 그들의 姓名이 없어지지 않게한 것을 칭찬하고 다음으로 자기가 威鏡道 觀察使로 있을 때에 직접 目擊한 奇行二項을 들어서 附記하였을 뿐이다. 이제 이 책이 蒐集한 文獻을 보면 鄭載崙의 公私聞見錄 南有客의 雷淵集 徐命膺의 保晚齋集, 朴胤源의 近齋集, 洪良浩의 耳溪集, 南公敏의 金陵集, 尹行恉의 碩齋稿, 同人의 方是閑輯, 金祖淳의 楓阜集, 洪爽周의 淵泉集 등 公卿貴人의 文集이 있는가하면 李德懋, 柳得恭

등의 庶孽出身의 著書를 위시하여 洪世波의 柳下集 鄭來僑의 浣巖集, 高時彥의 省齋集, 同人의 昭代風謠 등 20여종은 모두 庶孽이나 中人, 또는 그 아랫층 계급의 著書들이며, 이 책속에 引用된 人物들은 孝子, 忠臣, 烈女 등 三綱行實이 두드러진 者도 있으나 義俠, 文學, 書畫, 琴碁, 醫卜으로 이름있는 사람의 行蹟을 엮는데 크게 힘을 기울인듯 하다.

3. 本書의 意義

前述한 바와 같이 本書는 草野에 묻혀 숨은 빛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의 行蹟을 수집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것은 表面上의 이유에 불과하며 이 책의 편자가 의도한 곳은 따로 더 큰 곳에 두었으니 이를 端的으로 말하면 곧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 人材登用의 不均等에 대한 一大抗爭으로 無言의 분노를 絶叫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李朝時代의 階級制度는 다른 어느 나라 어느 王朝의 그것보다. 훨씬 가혹하였다. 첫째 庶孽들의 出世制限이다. 물론 같은 양반이면서도 庶子, 또는 庶子の 後孫이라 하여 양반들이 나아갈 수 있는 官路에 오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일찍부터 논의되다가 임진왜란에 庶民層에서 義兵활동을 위시하여 애국운동에 앞장서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보고 宣祖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는데는 열가지도 마찬가지로인데 나라에 충성을 받치는데 있어서 꼭 嫡子라야 된다는 법이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으나 既成세력의 저해로 마침내 소위 <通淸>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哲宗 때에 大邱儒生들이 역대 서얼출신의 분학과 行蹟을 모아 「葵史」라는 책을 편찬한 것은 宣祖의 말에서 책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兩班의 서얼은 소위 淸宦의 대열에 오르지 못할 뿐이요, 출세의 길이 전연 막힌 것은 아니며 正祖 때에 李德懋, 朴齊家 등 이른바 四檢書들은 임금의 지극한 총애를 받기까지 하였다. 정말 억울한 것은 서얼도 못되는 中人以下 賤人층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기개가 있든가 혹은 문학이나 學行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에게는 출세라는 것은 꿈도 꾸어볼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역사가 있다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줄 곳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름이 좋아서 草野에 묻힌 逸民이지 그들인들 왜 출세하여 부귀와 공명을 쟁취할 생각이 없었랴. 다만 그들에게는 先天的으로 그런 자격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간혹 비상 시국을 당하여 자기의 분수이상의 공로가 있었다할지라도 그것은 대개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상관들에게 돌아가고 직접 공을 세운 사람은 겨우 기록했다는 두 글자의 칭찬만이 꺾전에서 살아지고 마는 정도였다.

그런데 本書에 실린 各項의 人物들을 놓고 그들의 事蹟을 보면 既成秩序에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간 사람과 부정적으로 나간 두가지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곧 前者는 傳統的인 儒學의 倫理를 그대로 받아들이어 自己의 본분 안에서 孝行, 忠義, 學問, 操行을 닦아 현실에 복종하며 착실한 修鍊을 가지므로 비록 그로 인하여 계급이 달라지며 社會的 地位가 向上되지는 않는다할지라도 士族階級으로 부터 칭찬과 獎許를 받으므로 自己滿足を 느끼는 者들이 대부분이었으니 朴泰星의 孝行이라든가, 安光洙 같은 이가 教養이 낮은 津村部落에서 民衆을 教化시킨다든가 金益春이 學問은 貴族들의 獨占物이 아니요, 賤人도 할수있는 것이라하여 讀書와 實行에 힘써 마침내 旌閭의 표창을 받는 영광을 얻게된 것 등은 모두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가령 忠義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으니 곧 君臣은 天命이기 때문에 임금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貴賤을 막론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여 혹은 義兵을 일으켰고 혹은 下級軍校로서 一身의 利害를 돌보지 않고 壯烈한 殉國을 감행한 者의 기록을 本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義氣面에서 볼 때는 실로 높이 칭찬해야 할 것이나 그들의 思想면으로 볼 때에는 既成倫理에서 한걸음 앞서보려는 前進的인 정신이 전혀 결여된 것이다.

한편 문학이나 書畫 같은 우수한 藝術의 才質을 가져 士族들과 같이 修鍊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도 이른바 등넘어글로 배운 것이 차츰 藝苑에 명성을 떨치어 그의 詩句는 人口에 膾炙되며 그의 作品은 上流의 鑑賞을 充足시키게 하였으니 이런 慧星이 下流에서 많이 나타난 것은 그 天才的 素質이 스스로 진흙속의 玉으로 빛을 끝까지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洪世泰, 高時彥, 鄭來僑는 비교적 연대가 올라가지만 千壽慶의 松石園을 中心으로 모이는 而已廳張混, 數里王太 등 風流詩人은 실로 우리 나라 詩史에 남을 위대한 巨星들이다. 이 밖에 本書에 收錄된 嚴漢明, 曹匡振 등의 글씨와 金鳴國, 秦再梁, 金弘道, 崔北 등 不世出의 畫家들이 그 傳記조차 제대로 傳하지 못하였음은 실로 애석한 일이다. 以上の 忠孝, 學行 및 藝術人들은 좋은 삶은간에 모다 현실을 긍정하고 그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수

있다.

다음으로 비록 현실에 대하여 반항의 태도로 나오지는 못했을 망정 고분고분 그대로 복종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否定的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는 林俊元, 鄭壽銅 같은 이를 들수 있으니 그는 卓越한 見識과 豪放한 기개를 갖고서도 矛盾된 制度에 얽매어 슬과 해학으로 國平을 토로하며 기구한 운명 속에서 一生을 보냈다.

또한 倫理야 어쨌든 制度야 어쨌든 아랑곳 없이 오직 愛國的 義憤에 못이겨 赤手空拳으로 國家를 위하여 力量과 지혜를 다 바쳐 民族的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者가 있으니 그는 곧 單身으로 日本에 건너가서 倭人 官吏들과 담판하여 우리 領土인 울릉도에 倭人의 足跡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한 安龍福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封建體制가 확고히 존재하는 한 肯定的인 否定的인든 그들은 용맹을 쓸 도리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本書와 같은 性格의 著書가 도리어 無言抗爭의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보다 앞서 下流出身의 作品集으로 高時彥의 昭代風謠와 千時慶의 昭代風謠續選이 있었는데 그 편집者의 의도는 本書의 編者나 同一한 精神이었을 것이다. 漢代의 大歷史家인 司馬遷은 그의 名著인 史記에서 특히 역사상에서 존재가 호된한 游俠列傳과 刺客列傳을 써서 그들의 反抗精神을 無言中에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司馬遷이 당시 현실 사회의 여러가지의 모순을 직접 목격 체험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名敎의 罪人인 刺客와 俠客들의 행동에 대하여 동정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上流層에 속했던 史記의 作者도 오히려 역사를 쓰는데 이러한 태도를 취했거늘 하물며 編者自身이 직접 下流에 속한 李慶民으로서야 더욱 당연하지 않겠는가!

本書의 題目을 붙인 의미는 자못 심각한바 있으니 熙朝一축 太平盛世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그늘 속에서 소외된 사실이 있다는 극히 풍자적인 명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引用書目으로 보아도 몇 사람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本書中の 人物들의 著書임은 특히 注目 할만한 사실이다. 뒤에 嵩陽散人 張志淵은 本書의 資料에 근거하여 약간의 追補를 붙여서 「逸事遺事」라는 題目으로 책을 만들어 1918년에 刊行된바 있다.

以上の 敘述에서 대략 本書가 가진 意義가 밝혀졌으리라고 믿거니와, 藝史, 風昭代風謠, 昭代風謠續選과 함께 이들은 모두 李朝封建社會의 矛盾된 制度에 항쟁하는 意義를 갖는 傳記라 할 수 있다.